



제주무형문화재단이 열린 지난 6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국기자

“잊혀져 가는 제주의 무형유산 가치 확인”

올해 두 번째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막내려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가치 알리는데 중점 대중성 확장·무형문화재 연계 체험 개발 과제

도내에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를 공연, 시연, 체험 등을 통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종합 축제인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지난해 첫선을 보였고 올해 두 번째 맞는 대전이 지난 5-6일 이틀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가을 제주목 관아에서 선보였던 축제는 올해는 어린이날에 맞춰 개막하며 미래세대인 어린이

들에게 제주의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체험, 퀴즈쇼 등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날 많은 비가 내리고, 둘째 날도 흐렸지만 행사장엔 어린이날과 주말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무형문화재 시연·체험은 이색적인 경험의 시간이 됐지만, 무형문화재와 연계한 체험이 일부 종목에 그쳐 향후 아이들이

보다 가까이서 쉽게 무형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승자와 함께하는 연령별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어린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한 30대 관람객은 “아이들과 놀러고 나왔다가 들르게 됐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체험은 다 부모 뉘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무형문화재 축제라고 하던데,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은 어렵게 전통을 이어가는 전승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은 무형문화재의 가

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축제라는 데 의미가 크다. 그만큼 축제의 지속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두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유산을 마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라고 생각한다. (축제가)계속돼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많이 공유하기 위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길 매력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대중성 확장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확대는 과제다. 혼란 방지를 위한 축제시기, 장소 고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오은지기자

잘못된 제주어 표기 수정 박차 “현실 발음대로”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지난해 142개 표제어 수정 제주도, 올해 400여개 어휘 발굴·수정 요청할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사전인 ‘우리말샘’에 잘못 표기된 제주어를 현실 발음에 가까운 표기로 수정해 나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제주학연구센터와 협업해 142개의 제주어 표제어 수정에 이어 올해는 400여개 이상의 어휘를 발굴·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에 올라 있는 제주어 어휘는 총 1만 8000여 개다. 이중 20%가 넘는 4000여 개 표제어가 ‘아래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현실 발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아’나 ‘오’ 등으로 모음을 수정해 등재하고 있다. 이에 도와 제주학연구센터는 표

제어에 ‘아래아(·)’를 쓸 수 없다면 최소한 현실 발음에 가까운 표기로나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도가 수정 요청한 어휘 중 ‘남뻬, 닥세기, 다슴아달, 맘국, 상기, 탁, 카갈하다, 하품, 타라지다’ 등 9개의 어휘를 ‘남뻬, 닥세기, 다슴아달, 몸국, 송기, 탁/톡, 코콜하다, 호품, 토라지다’로 수정했다.

이 단어가 수정되면서 예문 및 관련 어휘 수정도 함께 이뤄져 142건의 표제어가 동시에 현실음에 맞

게 수정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올해 제주 문화의 정수인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해 제주어 교육사업과 제주어 홍보 등 30개 사업에 7억4000만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제주어 교육 추진 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도는 제주어 2차 세대를 위해 제주어의 온라인 교육 영상 및 신기술을 이용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흥미 있는 교수들을 개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전국무용제 제주예선 6팀 참가

이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오는 10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제32회 전국무용제 본선 무대 진출을 위한 제주예선전이 이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예선전엔 손민호 S발레단, U-dancecompany, 오경실무용단, 길 Art Dance Company, (사)대한컨트리댄스협회제주지부무용단, 제주오름무용단이 참가한다.

(사)대한무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최길복)는 최근 제32회 전국무용제 본선을 위

한 제주예선전 참가 단체를 공모한 결과 6개 단체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예선과 함께 열리는 오돌포기 제주춤제예선 인천과 몽골셀렝게도 민속무용단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초청공연단체는 제주오돌포기 음원과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지역 비전문 단체도 참가해 도민문화 향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한편 전국무용제는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예선전을 거친 대표팀들이 선의 경쟁을 하는 무용인들의 큰 잔치다. 내년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스튜디오126, 예술가 첫걸음 응원

올해 기획전시 공모서 임예빈 기획자 선정 이달 16일까지 ‘사이버네틱스: 제어된 무의식’

지난해부터 신진 예술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대안 공간 스튜디오126(제주시 관덕로 14-4)이 올해는 제주지역 기획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공모를 진행했다.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임예빈 기획자의 ‘사이버네틱스: 제어된 무의식’ 전시를 진행 중이다. 전시에는 김나현, 양교일, 양여진 세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시장은 회화, 영상 12점이 내걸렸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는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향해 자동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으로 그리스어 ‘Kybernetes’(조타수, 조종하다)에서 유래했다.

임예빈 기획자는 전시 서문에서 “이번 전시에서 양여진은 자신의 틀 안에 있던 무의식의 요소들을 의식화하여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김나현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정체성을 발견한다. 양교일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관념적인 이미지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존재의 방식을 새롭게 접근한다”고



양여진 작 ‘틀에서 나오려고 해’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자신이 생각한 의식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때론 무의식이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KEY)을 한다”며 “바다의 배도 목적지에 가기 위해 조타수와 방향기가 있는 것처럼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길 준비를 하는 자신과 대면해 왜곡된 시선은 회복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 1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일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오은지기자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개최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기업이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 👷 ① 일 정 ○ 5.11.(목) 14:00~16:00 서귀포권역 (서귀포 국제라이온스 협회 회의실/ 동홍중앙로 90번길 44)
○ 5.12.(금) 14:00~16:00 제주시권역 (제주상의 5층 국제회의장/청사로1길 18-4 5층)
- 👷 ② 참석대상 : 제주도내 기업체 임직원 대상
- 👷 ③ 참가신청 : 제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070-4566-5771) ※무료교육

※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내 소재 중소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과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도 안전정책과 ☎710-2564)

